

문화연구와 미국의 소수인종문학 연구* "Cultural Studies and Minority Literature in America"

김 성 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1. 문화연구의 변천: 문화번역/트랜스문화연구/미국문화연구

영국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시작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는 초기에는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의 지평 확대, 대중문화와 대중문학 텍스트의 포용, 그리고 아카데미와 커뮤니티의 조화 추구에 치중하면서 시작되었다.¹⁾ 문화연구 때문에 고급문화와 순수문화 (또는 고급문학과 순수문

* 이 논문은 2006년도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인문사회 해외파견 교수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Antony Easthope, *Literary to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1).

이 책은 문화연구의 기본서로서 문화연구의 핵심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이스트호프에 의하면, 「문화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것—즉 “제도화된 정전문학”과 “전통적 인문주의”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화된 정전문학”은 우선 모더

주 제 어: 문화연구, 문화번역, 트랜스문화연구, 소수인종문학, 한국계미국문학, 다문화주의

학)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고, 문학이 영화나 인터넷 게임이나 팝뮤직이나 만화 같은 타 매체와 나란히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텍스트로 축소된 것도 바로 그 시점이었고, SF나 판타지나 추리소설 장르가 부상하고 대중문화/대중소설이 감히 귀족문화/고급문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시절이었다. 또 신성하게 여겨졌던 서구의 정전들이 도전받고, 비서구의 비정전 텍스트들이 대거 주류로 편입되며 부상한 것도 바로 그 때였다.

이후, 문화연구는 영국의 개방대학들(open universities)에 설치된 대중문화강좌나 텔레비전 및 영화강좌들을 통해 확산되면서, 점차 문화 속에 감추어진 이데올로기를 찾아내기, 문화의 생산과 수용과 배급에 개입하는 지배문화의 대중 조종과 세뇌 고발 같은 미디어문화의 정치성 성찰로 그 관심사가 확대 되었다. 영화텍스트를 통한 당대의 문화읽기,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이데올로기를 찾아내기, 그리고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보는 태도 등은 모두 이 시절의 소산이었다. 문화연구자들은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도 자본주의의 음모에 세뇌되고,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는 것도 미국문화의 세계 지배 음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게 되었다. 그들은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도 자국의 문화를 파괴하려는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 파악했으며, 모든 것을 문화제국주의의 논리로 설명하려 했다.²⁾ 이는 문화

니즘과 신비평시대에 확립된 “위대한 책들(Great Books),” “결작/명작(Masterpiece)” 또는 “문학 정전(Literary Canon)”을 의미한다. 소수의 모더니스트들이나 신비평가들에 의해 제도화된 이 「정전」들은 그동안 문학연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 주변부로 밀려난 비정전 텍스트들을 효과적으로 배제시키고 침묵시켰다. 그 결과, 대학의 교과과정은 소위 공식적인 정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강의실에서 연구되고 논의되는 작품 역시 정전에 제한되게 되었다. 문화연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Simon During, ed. *The Cultur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3)을 볼 것.

2) Douglas Kellner, *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London: Routledge, 1995). 미디어 문화 텍스트들은 오늘날 우리의 국지적, 국가적, 그리고 글로벌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들 자체가 경쟁적 사회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구상과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미디어 문화 텍스트들은 적대적인 정치담론들을 재생산하는데,

연구가 원래 영국의 좌파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연구는 “문화번역연구(cultural translation studies)”과 “트랜스문화연구(transcultural studies)”, 그리고 “소수인종문화 연구(minority cultural studies)”로 그 주안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개념과 경계가 사라져가면서 생긴 서로 상통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민족/문화 사이의 칸막이가 무너져가는 시대의 문화현상을 성찰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세 가지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개념은 학문에서는 트랜스학제간 연구(trans-disciplinary studies)를 활성화시켰는데, 이는 과거의 학제간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나 다학제간연구(multidisciplinary studies)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는 또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다문화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학문과 사물에 대한 비교 문화적 접근과 해석을 활성화 시켰다(‘트랜스’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는 ‘횡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트랜스’라는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화번역’이란, 그동안 자신들의 경계선 안에서만 생활해온 사람들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서로의 언어, 사고방식, 행동양식, 가치관 등에 숨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문화 텍스트들과 문화양식들을 통한 “소통”을 의미한다. 물론 문화번역자는 자신의 문화적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문화에 대한 동경과 저항, 또는 오해와 오독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화연구는 문화번역 속에 다양한

이것은 때로 매우 모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뉴스와 정보뿐 아니라, 오락과 소설도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계와 대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갈등, 공포, 희망 그리고 꿈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변화와 갈등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문화와 사회이론들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Kellner, 42).

형태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문화 권력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번역자(translator)”는 더 이상 “반역자(traitor)”가 아니라, “중개자(mediator)”의 위치로 격상되고 있다.

문학텍스트는 문화번역의 훌륭한 텍스트이자 좋은 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문과에서 문화번역은 문학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크게 확대시켜주는 흥미 있고도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문화번역은 현재 페미니즘이나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영문학연구에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화번역을 통해 우리의 학문후속세대를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두 겹의 시각을 가진 진정한 글로벌시대의 인재로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번역 이론에는 문제점도 있다. 예컨대 일부 문화연구가들은 문화번역 이론을 펼치면서 모든 것을 정치이데올로기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비판적 태도는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³⁾ 예컨대 과연 모든 것을 제국주의 지배

3) 모든 것을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론으로는 다음을 볼 것.

Michael Skovmand and Kim Christian Schroder, *Media Cultures: Reappraising Transnational Media* (London: Routledge, 1992), 7.

“지금까지 문화정체성이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문화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립된 정의도 없이 진행되어왔다. 즉 그러한 논의들은 문화정체성이 단일하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정체성은 대단히 복잡적이며 다층적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문화제국주의와 문화식민주의로 나눌 수 없다.”

John Tomlinson, *Cultural Imperialism* (London: Pinter, 1991), 3.

“잠깐만 생각해보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방송자가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가치나 관습을 찬미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가 자국문화를 말살한다는 생각은 매우 모호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와 식민지인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타당한지, 번역작업 자체를 일종의 권력행위로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문화자체를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번역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전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지배문화와 소수문화 사이의 경계해체와 교류에 공헌하게 되었으며, 두 문화 사이를 중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⁴⁾

“트랜스문화연구” 또한 각 집단이나 문화권 사이의 경계를 초월해 서로 넘나드는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배문화와 소수문화, 중심과 주변, 또는 백인중심 서구문명과 유색인 중심 비서구문화 사이의 문화적 이입과 교류, 그리고 문화적 통합과 충돌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특히 “트랜스 미디어문화연구”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를 통해 국경을 넘어 우리들의 안방으로 날마다 스며들어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글로벌 시대의 세계인으로 만들고 있고,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⁵⁾ 그렇기 때문에, “문화번역”처럼 “트랜스문화연구”

4) 예컨대 디즈니 만화영화 [도날드 덕]을 자본주의 찬양이라고 비판한 남미의 Ariel Dorfman의 비판에 대해, 존 탐린슨은 정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One reads the Scrooge character as a deliberate mockery of the absurdity of ‘money-fetishism’, another extends this to see a ‘closer critique of capitalism’ in the stories, with Scrooge as a ‘biting parody of the bourgeois entrepreneur in the competitive stage of capitalism.” 위 책. 43쪽.

‘문화번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47-62. 참조.

5) M. Skovmand et al. ed. *Media Cultures: Reappraising Transnational Media*. (London: Routledge, 1992), 145. 미디어 문화연구는 헐리웃 영화들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CNN이나 MTV를 통해 사도 현대 미국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디어 문화 연구는 또 미디어가 현대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인 계급, 젠더, 인종, 그리고 정체성 문제들을 재현하고 있는 문화적 표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문화연구는

도 소수인종 문학이 주류문학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차에 인코딩(encoding)되어 있는 상대방의 문화적 특성들을 얼마나 잘 해석(decoding)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천착한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끼어들어 개입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탐색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연구, 그 중에서도 문화번역과 트랜스문화연구는 특히 소수인종 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지배문화와 주변문화의 관습적인 경계가 해체됨에 따라, 예전처럼 단순한 제국주의/식민지 구도에서 바라보는 일방적 시각이 아닌, 보다 더 복합적인 시각으로 그 둘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학(American Studies) 또한 최근에는 미국문화연구(American Cultural Studies)로 주관심이 옮겨가고 있다.⁶⁾ 즉 종래의 미국학을 문화연구적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변화의 취지이다. 그래서 미국문화학(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청년문화/반문화,” “여성문화,” “미국의 경계해체” 등 기존의 미국학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문화적 분야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미국문화연구는 또 인종문제나 종교문제, 서부나 남부 문제, 또는 도시와 프런티어 같은 전통적인 주제도 문화연구와 연결시켜 다루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미국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학(American Studies)의 근원을 찾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문학과 역사를 통해 미국을 해석하고 정의하려 했던 버논 패링턴의 폴리처상 수상작인 □□미국사상의 주류(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1927)와 조

문화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적 문제들을 성찰하게 된다.

6) Neil Campbell and Alasdair Kea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7).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중요한 문화텍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문화연구가 한 나라의 문화를 얼마나 심도 있게 읽어낼 수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1. 새로운 시작: 미국의 문화와 정체성/ 2. 인종과 이민/ 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4. 미국의 종교(미국 종교의 특성/종교가 미국문화에 미친 영향 연구/ 5. 지역주의: 서부와 남부/ 6. 미국의 도시/ 7. 젠더와 성(미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
8. 청소년 문화/ 9. 미국의 경계를 넘어서/ 10.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문화

우하게 된다. 패링턴의 이 기념비적 저서는 최초의 미국학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지만, 학자로서 본격적으로 미국학의 기틀을 세운 사람들은 헨리 내쉬 스미스와 R.W.B. 루이스와 리오 마르크스였다. 그들은 각각 □□버진 랜드□□와 □□아메리칸 아담□□과 □□정원 속의 기계□□에서 '신화적 존재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친착했지만, 신대륙을 에덴동산으로 그리고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을 아담으로 보는 시각은, 그것이 미국을 설명하는 적절하고도 좋은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미국의 예외주의를 옹호하는 백인위주의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즉 만일 아메리카대륙이 처너지이고 유럽 정착자들이 아담이라면, 유럽인들의 미국건설은 합리화되는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권리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신화적 접근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원주민들이나 흑인 노예들에게 져야 할 윤리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었다. 비판자들에 의하면, 신화는 언제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후, 그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신화적 이데올로기는 재조명하고 철저히 검증해야만 한다.

미국학의 그와 같은 전통적 접근방법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진보적인 미국학 연구자들에 의해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 이후, 미국학 연구자들은 아메리카를 신화적 존재로서보다는 역사적 실체로 보고, 백인주류문화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소수인종 문화들--예컨대 원주민계,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문화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미국 백인주류문화의 책임을 강조했고, 소수인종 문화를 옹호했으며, 미국사회의 소외계층에 주목했다. 미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 내 소수인종 커뮤니티와 원주민 보호구역과 형무소(사회에서 격리된 소수인종들의 특성과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를 찾아가 케이스 스터디를 했으며,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에까지 가서 현장연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문화연구가 대두됨에 따라 미국학연구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문화적 시각과 문화연구적 접근법이 차용되면서, 소수인종 문학과 문화 또한 미국학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컨대, 아프리카계 미국문학과 문화, 라틴계 미국문학과 문화, 그리고 아시아

아게 미국문학과 문화의 특색과, 백인 미국문화와의 관계 등은 민족연구 (ethnic studies),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그리고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와 맞물려, 오늘날 미국문화연구가 즐겨 다루는 분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문화와 주변부 문화의 조우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순수문화보다 혼합문화가 더 각광받고, 지배문화보다 주변부 문화가 더 각광받게 된 시대가 되었다.⁷⁾

2. 미국의 소수인종문학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소수인종작가들은 두 문화 사이에 서서 ‘문화 번역가’의 업무를 다각도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 또한 중요하고도 훌륭한 ‘트랜스문화텍스트’로서 크게 부상해왔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소설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딕테(Dictee)□□의 작가 테레사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이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및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의 이창래(Chang-rae Lee)처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한 후, 미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문제점들을 주제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다. 예컨대 요절한 작가 차학경은 이민자가 미국사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억압과 상실 의식과 언어장벽을, 모국어를 빼앗긴 일본 식민지시대 한국인의 상태에 절묘하게 비교한 포스트모던/포스트식민주의적 소설 □□딕테□□를 발표해 비평가

7) 다문화주의와 소수인종문학에 관한 논의는 다음 책들을 참조.

David Bennet, ed. *Multicultural States* (London: Routledge, 1998), 37-47.

Joe L. Kincheloe and Shirley R. Steinberg, *Changing Multiculturalism* (Buckingham: Open UP, 1997), 169-205.

Libby V. Morris and Sammy Parker, *Multiculturalism in Academe* (New York: Garland, 1996), 146-160.

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프린스턴대학 교수 이창래는 진정한 미국인, 즉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원래 뿌리인 한국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도 못한 이민 1.5 세대들의 고뇌를 담은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써서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어 이창래는 자신의 근본과 뿌리를 부인하고, 평생을 모범적인 일본인과 미국인이 되기 위해 살아온 한국인 주인공의 삶이 결국은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을 다룬 [제스처 라이프]를 발표했다. 그러므로 차학경과 이창래에게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한국계 미국인 주인공이 느끼는 갈등과 정체성 위기와 충성심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

둘째는 □□중군 위안부(Comfort Women)□□의 작가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나 □□나의 유명 형님의 기억□□의 작가 하인즈 인수 핑클(Heinz Insu Fenkle)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혼혈작가들이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후 하와이로 건너간 노라 옥자 켈러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억압과 침묵과 소외를 천착해왔다. 하인즈 인수 핑클 역시 한국의 미군기지 에서 태어난 성장한 혼혈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정복자인 미국과 피정복자 한국, 혼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사회, 그리고 동양을 무시하는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고뇌하는 혼혈아의 모호한 위치를 성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작가들에게 “혼혈”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회색시대”의 상징으로 제시된다.

셋째는 □□옐로(Yellow)□□의 작가 단 리(Don Lee) 같은 이민 2세대나 3세대나 작가들이다. 이들은 이미 미국화 되어 있고 미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만, 아시아인으로서 느끼는 간헐적인 외로움이나 소외의식, 또는 미국사회가 제공해주는 안락함에 마비되어 살아가며 자신의 고립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뛰어난 소설들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사는 모국에 대한 향수나, 미국사회로의 동화문제나, 두 나라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충성심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일 때가 많다.

그래서 돈 리는, 한 인터넷 인터뷰에서 “내 소설에서 인종문제를 빼도, 여전히 소설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문학의 주인공들이 미국사회에서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사이, 또는 다른 소수인종들 끼리의 역동적 관계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성찰하며 대응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려고 한다.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끝내 미국인이 되지 못하는 헨리 박의 “영원한 이방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⁸⁾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헨리는 미국여자와 결혼하고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미국적 사고와 아버지의 한국적 사고 방식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한다. 한국가정에서의 교육은 헨리로 하여금 감정을 감추고, 모든 것을 외우는, 말 수가 적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데, 이는 그를 이상적인 스파이로 만든다. 스파이가 된 헨리는 또 다른 한국계 이민 정치가 존 강을 조사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비록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결코 진정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록 미국인이지만, 미국사회에서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직업인 ‘스파이’는 그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훌륭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그□□지는 헨리를 랠프 엘리슨의 “보이지 않는 사람 (Invisible Man)”에 비유했는데, 그 이유는 동양인을 전형화해서 보는 백인들의 시각 때문에 헨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헨리는 리처드 라이트의 “네이티브 선(Native Son)”과도 비교된다. 라이트의 주인공 비거 토머스 또한 헨리처럼 미국의 토박이면서도 백인사회에서는 소외된 외래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창래는 두 번째 소설 □□제스처 라이프□□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

8) Chang-rae Le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1995). 이 작품의 한국어 판 제목은 “영원한 이방인”이다. 이창래는 세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긴 채, 평생 일본인과 미국인 행세를 하며 살아온 한국인 주인공을 통해,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주변인의 심리를 정치하게 탐구해 묘사하고 있다. 일본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일본인 프랭클린 구로하타는 일본 황군에 충성하는 장교가 되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뿌리를 숨긴 채 정신대의 참상도 외면한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이번에는 충실한 모범적 미국인이 되어 미국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그는 과연 그 두 지배문화에 받아들여진 것일까? 또 지배문화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는 자신의 뿌리와 진정한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구로하타는 자신의 삶이 결국 진실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일본군대에서 군의관이 아닌 단기훈련 의무장교로 복무했으며, 미국에서도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상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닥”이라고 불렸고, 의사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진짜 의사가 아닌, 그가 어떻게 인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겠는가?

이창래의 문학세계에서 주인공들은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서 고뇌하고 방황한다. 각각 이민 1.5 세대와 1세대인 헨리와 구로하타의 딜레마는, 그들이 지배문화와 주변문화 중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의 충성심이 필연적으로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 모든 이민 1.5세대 작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⁹⁾

9) 이창래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주장, 그리고 지배문화로의 편입과 받아들여짐의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하타의 경우, 일본인들 앞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그리고 미국인들 앞에서는 자신이 동양인임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지배문화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떳떳한 것이라고 이창래는 시사한다. 아무리 일본인인 척 해도, 또 아무리 백인인 것처럼 행동해도, 지배문화의 눈에 하타는 결국 한국인이고 동양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타의 비극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은 부정할 채, 오직 지배문화의 일원이 되기만을 원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타가 자신이 편입된 일본사회나 미국사회를 부정하고 거부만 했다면, 그것 또한 똑같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로 최근 미국문단에 부상하고 있는 이민진 (Min Jin Lee) 또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가다. 일곱 살 되던 해인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녀는 어린 시절, 뉴욕 퀸스의 방 한 칸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다섯 식구가 사는 극빈생활을 경험했다. 후에 예일대학과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녀는 조승희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녀가 네 번째 쓴 소설이자 첫 출간 소설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가 바로 조승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한국이민자의 가정과 문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의 주인공 케이시 한은 명문 프린스턴대를 졸업했으며, 역시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 장차 변호사로서 부와 명성을 누리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는 미래가 보장된 그 화려한 길을 포기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멋진 모자를 좋아하는 케이시는 “성공과 명예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녀는 “맨해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의 고달픈 삶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더 환하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다.”¹⁰⁾ 그러나 그녀는 귀족적인 대화나 골프나 사교클럽 같은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프린스턴의 귀족주의적 속물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과도한 기대에 부담스러워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동의 영역과 겹치는 지역을 통한 동서 문명의 화합과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의 주제와 상통한다. 그러나 부정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인정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나 인종차별주의나 서구 중심주의가 사라지고 동서 간에 동등한 상호인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애초에 식민지인이나 타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 하타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Chang-rae Le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1999).

10) Min Jin Lee, *Free Food for Millionaires* (New York: Warner Books, 2007), 1.

그런 의미에서 케이시는 자신이 다니던 명문 예비고교의 속물들에게 진저리치고 뛰쳐나와 맨해튼을 방랑하는 J. D. 샐린저의 반항아 주인공 홀든 콜필드(□□호밀밭의 파수꾼□□)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퀸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날마다 맨해튼에 나가 세탁소 일을 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케이시의 아버지 조셉은 딸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한다. 한인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곧 자신들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 미국 상류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곧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로 생각한다.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 하며,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교육과 출세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왔다고 생각하는 한인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그러한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답답한 유교적 사고”일 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와 미국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민 가정에서 대부분의 한인부모들은 자녀들이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두 직업이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신분과 부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향에서 받은 설움과 한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 바로 자녀들이 법관이나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에서도 한인부모들은 주인공 큰딸 케이시를 변호사로, 그리고 둘째딸 티나를 의사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식 사고를 가진 자녀들이 다 부모의 그런 희망에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생 티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의대에 진학하고 한국남자와 결혼하지만, 언니 케이시는 부모의 기대와 강요에 반항해, 법대 진학을 포기하고 백인을 포함한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섹스를 하거나 동거한다. 미국사회에서는 부모가 성인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기대나 간섭이 여전히 심한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조승희 같은 왜곡된 성격을 가진 사회의 부적응자로 성장하기 쉽다. 전문가들

은, 조승희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래서 누나처럼 아이비리그에 가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이 극심한 열등감을 불러왔고, 열등감은 곧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표출되었다고 지적한다.

화가 난 아버지는 딸 케이시를 구타한 후 쫓아내고, 케이시는 집을 뛰쳐나와 방랑하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바로 가출한 케이시가 미국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시작된다. 그녀가 뉴욕을 방랑하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미주 한인들, 그들에 대한 애정과 실망,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아탐구 등은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모든 면에서 모범생인 어린 시절 친구 엘라, 그녀의 의사 아버지 심박사, 오직 부와 출세를 위한 야망에 불타 불륜까지 저지르는 엘라의 첫 남편 테드, 케이시를 좋아하지만 도박에 빠지는 은우, 뉴욕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빈느와 아이작 등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케이시의 눈을 뜨게 해주는 휴먼텍스트들이다.

케이시의 미국사회 동화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그녀의 백인 남자친구 제이 커리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집을 나온 후 처음 찾아갔던 제이의 방에서 케이시는 자신의 남자 친구가 두 명의 백인여자와 그룹섹스를 하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실망한다. 한국가정을 뛰쳐나온 후 맨 먼저 위로를 얻고 의지하려 했던 미국가정의 상징 제이의 행태는 미국사회에서 케이시의 위치가 얼마나 어설피고 위태로운가를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케이시는 앞으로도 부단히 그런 문제들과 대면하고 씨름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애인의 배신은 앞으로 케이시가 주위사람들과 조우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실망을 예시해주고 있다. 예컨대 가족과의 단절이 한국식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은유라고 한다면, 백인애인과의 단교는 미국식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아시아계 이민 여성인 케이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사회에서 바로 그 두 문제를 다 대면하고 해결하며 살아야한다는 것이다.¹¹⁾ 케이시와 제이는 여전히 서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결국 제이는 나중에 일본계 여자인

케이코와 결혼한다.

백만장자는 모든 이민자들의 꿈이다. 케이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낡은 구세계의 도덕과 굴레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도 과연 미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 가기를 거부하던 그녀는 나중에 뉴욕대의 스티븐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는 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영대학원 또한 부를 밝히는 한인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다. 케이는 또 월스트리트 회사에서 임시직원으로 일하며, 아마도 정식직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인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휴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자기를 좋아하는 은우를 실망시키기도 한다. 그녀는 또 나중에야 부모들이 그리도 높이 평가하던 아이비리그 졸업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그녀의 기출과 방랑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또 그녀는 과연 백인 주류미국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는 이민 15 세대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한미 양국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 두 세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뇌, 그리

11) 주류사회의 인종적 편견과 자기네 남성들의 편견을 동시에 겪어야만 하는 아시아계 여성들은 이민사회에서 이중의 고초와 억압을 겪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Asian American writers and scholars are indebted to the editors of *Aiiieeee: An Anthology of Asian-American Writers*, who in 1975 drafted an uncompromising attack on mainstream American literary criteria and in the process introduced a generation of readers to an ethnic literature that until then was relatively unknown or believed inconsequential. Enabling an understanding of the force and value of Asian American writing, Frank Chin, Jeffrey Paul Chan, Lawson Fusao Inada, and Shawn Hsu Wong countered the stereotype of Asian American docility with their own version of Asian American empowerment. In doing so, unfortunately, they moved from ethnic to gender stereotypes and situated their approach in an explicitly masculine position.”

Shirley Geok-Lin Lim, “Japanese American Women’s Life Stories: Maternity in Monica Sone’s *Nisei Daughter* and Joy Kogawa’s *Obasan*” in *Asian American Writers*,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89.

고 두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배신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래가 자신의 □□네이티브 스피커□□나 □□제스처 라이프□□나 □□얼로프트□□에서 부단히 암시하고 있듯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케이지가 당면하고 씨름하고 고뇌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아시아계 이민자라면 누구나 숙명처럼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¹²⁾

테레사 차학경은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갑자기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작가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 □□딕테□□에서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딕테이션’에 비유한다.¹³⁾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은 ‘딕테이션’을 1. “다른 사람에게 받아 적으라고 불러주는 것.” 2. “권위주의적인 명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학경에게 영어는 강제로 받아써야만 하는 언어이자, 복종해야 할 명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여성 차학경의 위치는 마치 언어를 빼앗기고 일본어를 써야만 했던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과의 같다. 미국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용히 앉아 불러주는 대로 쓰

12)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는 대부분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고, 본인도 또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엘레인 킴 같은 학자는 맥신 홍 킹스턴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문단에서 아시아계 문학을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인들의 단순한 자서전처럼 취급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맥신 홍 킹스턴은 각기 다른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작품인 □□여인무사□□(1976)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퍼블리셔스 위클리□□에 쓴 글에서 어떤 비평가는, 그 작품을 “중국의 문양” 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신화적 이야기들이며, 도자기 같은 정교함과 정밀함으로 짜여 있어, 동서양이 멋지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글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무사□□는 의도적으로 반이국적 작품이며, 반 노스텔지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laine H. Kim,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1982), xvi.

13) Teresa Hak Kyung Cha, *Dictee* (New York: Tanam Press, 1982). 이 책은 1995년에 First Third Women Press에서, 그리고 2001년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Press에서 재출간 되었다.

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쓰는 모든 것은 그것을 불러준 지배문화의 검열과 교정, 그리고 승인과 점수부여의 고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지배문화의 권위에 저항한다. 그녀는 받아써야만 하는 지면의 여백에 모국어려 써넣고, 태극기와 유관순의 그림을 그려 넣으며,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임의로 써 넣는다. 불러주는 사람은 읽을 수 없도록 인코딩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사람은 물론 독자들이다. 그녀는 지워야만 하는 모국어를 마치 암호처럼 텍스트의 여백에 써 넣음으로써, 지배문화에 저항하며 자신의 정체성 지우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과 사신들과 그림들과 외국문자들을 텍스트에 삽입함으로써, 그녀는 □□덕테□□를 ‘받아쓰기’가 아닌 오리지널 텍스트 즉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쓸 수 있는 텍스트(writerly text)’로 변형시키는데 성공한다.

이민 3세대인 단 리는 1세대 작가들과는 전혀 다른 미국문학을 산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미 미국사회에 동화된 그의 주인공들은 이민 1세대 작가들이 즐겨 쓰는 디아스포라 의식이나 고국에 대한 향수, 문화적 충돌과 갈등, 또는 두 세계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충성심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아버지 역시 이미 미국화 된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문화적 갈등이나 가치관의 충돌도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부모의 문화인 동양문화는 아득히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창래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인이 되었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었다(혹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의 인종적 배경이 작가와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일 뿐이다. 단 리로서는 백인 주인공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아시아계 주인공을 내세워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고, 독자들 또한 그것을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리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지는 않는다. 간혹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도 있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백인사회의 보이지 않는 편견을 경험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 모든 비서구 이민자들이 백인위주의 미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숙명적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단편

「도모 아리카토(Domo Arigato)」에서 단 리는 인종간의 결혼을 소재로 해서 일부 백인들의 편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하고 UCLA 의대에 진학할 예정인 주인공 유진은 역시 UCLA의 비교문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백인 애인 니키와 일본에 가서 여름을 보내기로 한다. 마침 일본에는 CIA요원인 니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주를 같이 지내는 동안, 유진은 니키의 아버지 브래디 켈리어씨가 동양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한다. 예컨대 브래디는 한국인은 모두 재일교포 김희로(당시 한국인의 차별을 외치며 인질극을 벌였던)처럼 테러리스트라고 농담하거나, 일본인들을 믿을 수 없는 포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해 유진을 경악케 한다. 유진은 니키의 어머니 역시 비록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유진에게, “그 애는 당신하고 헤어지려는 것 같아요. 다만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나 봐요.”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딸과 유진을 교묘하게 갈라놓으려 한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한다. “캘리포니아에 돌아가면 니키를 잊으세요. 세상의 끝 같겠지만, 아니랍니다.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려야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날 믿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말 해준 것을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Don Lee 2001: 193) 14) 그 일 이후, 니키와 헤어진 유진은 흑인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자넷과 결혼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켈리어 부부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야 쉬운 것인지도 몰라. 가슴을 찢어놓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듯이, 인종과 나라들 사이의 증오심도 어쩌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 (Don Lee 2001: 195)

인종적 편견에 대한 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는 「진실 서약(Dire Voir)」에서도 계속된다. 주인공 행크 권 로는 공선 변호사로서 중국인 범법자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그 중국인 코카인 중독자는 이름과 외모만 보고 행크를 중국인으로 생각한다. 행크의 미국인 아내 말리는 “당신이 아시아계이기 때문

14) Don Lee, *Yellow* (New York: Norton, 2001), 193.

에 그 중국인 케이스를 맡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묻는다. 미국의 로펌에서도 한국인 변호사들은 주로 한국 또는 한국이민 관련 업무를 맡기기 위해 고용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종적 배려일까, 아니면 인종적 편견일까? 이 단편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모 아리가토」에서 유진은 비슷한 인종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혼혈한국계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진실 서약]에서 행크는 한국계 여자인 엘리슨과 결혼했으나 맞지 않아 이혼하고, 지금은 백인여자 말리와 결혼해 살고 있다. 다만 그는 혼혈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그 아이를 지켜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리의 주 관심은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들의 애환과 방랑, 그리고 편견과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틀 스토리이자 중편소설 「엘로」의 주인공 대니의 아버지는 원래 서울 대학교 철학과 조교수였으나 미국에 와서는 시청 경리과 직원으로 일해야 했고, 어머니는 유명한 라디오 아나운서였으나 미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꽃가게 점원으로 전락했다. 본국에서의 지위나 지적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어실력이 없으면 막노동 밖에 할 일이 없는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이민들은 좌절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은 야채상이나 세탁소로부터 시작해, 주유소 소유자나 부동산업자가 되고, 이윽고 체인점이나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경제적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변호사나 의사, 또는 엔지니어나 전문경영인이 되어 사회적 신분과 부를 한꺼번에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니는 유라시안 같은 외모와 큰 키로 백인사회에 쉽게 동화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술 취한 하층계급 백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대니는 자신은 꼭 미국사회에서 성공해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집에서 동생들이 한국말을 할 때도 그는 영어로만 말했으며, 가족들이 한식을 먹을 때에도 혼자 양식을 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미국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애인 제니와 캠퍼스를 걸어가다가, 대니는 동양인 남학생들과 마주치게 된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남자 동양학생들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나나”라고 수근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지?”하고 그들이 멀어지자 제니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니가 다시 물었다.

“겉은 노랑고 속은 하얗다는 뜻이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거 재미있는 말이네. 그럼 ‘오리오’ 쿠키도 같은 뜻이겠네? 나는 그것이-세련되게 표현한다면-무슨 장부의 복식기장 거래 같은 것인 줄 알았어.” (Don Lee 2001, 226)

여기서 단 리는 서양인들의 편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동양인들의 인종적 편견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 단 리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거칠다고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하며, 중국인들은 그 중간 썸 위치해 있다.”고 말한다. (Don lee 2001, 198) 그는 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인들의 이미지가 폄하되고, 대학사회에서도 아시아 학생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이미지를 혐오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대학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캠퍼스 북쪽에는 미술대학과 인문대학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시아학생들로 가득 찬 과학관련 학과들이 있었다. UCLA의 과학전공 아시아 학생들의 전형적 이미지는 두터운 안경, 허리띠에 찬 계산기, 그리고 방수 바지였다. 그들은 일간이에 괴짜였고, 대니가 보기에 그들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 했다. 그네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렸고 편협했으며, 구제불능일 정도로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문과로 전과했다. (Don Lee 2001: 221)

그리고 영문과에서 대니는 여자 친구 제니를 만난다. 대니의 가족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대니의 선택은 현명한 것처럼 보였다. 제니의 할머니가 갑자

기 “자네, 베트남에서 왔나?”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당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트피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할머니가 미국에서 태어난 대니를 동남아시아 난민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제니의 할머니에게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가난한 난민이자, 불쌍한 보트피플일 뿐이다. 그래서 제니가 깔깔 웃으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쪽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요.”라고 말해주어도, 잠시 후 와인 잔을 들고 가족들이 환영 건배를 할 때, 할머니는 또다시 대니에게 “웰컴 투 아메리카!”라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런데 자네는 바다에서 몇 달 동안 못 먹은 얼굴은 아니네.”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제니의 부모들조차, 대니가 제니의 호기심 대상 수집품일 뿐, 결코 결혼 상대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대니는 제니와 헤어지고, 한국계 여자인 레이철과 결혼한다.

대학 졸업 후, 대니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다. 백인 중심의 보스턴은 원래 계급차별이 있는 곳인데다가, 당시 인도차이나 이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인종적 적대감까지 생겨나 백인과 똑같은 완전한 미국인 되고 싶어 하는 대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그 중에는 자기는 안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컨대 자선디너에서 만난 매기 하트만이라는 여자는, 뉴욕의 한인들을 칭찬하면서, “한국시장에서 내놓는 야채들은 잘 재배한 것이지요.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들이고, 상점들도 깨끗하고 깔끔하지요. 송씨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당신네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지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또 “난 한국인들을 존경하지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 한국인들이 쏟는 정성은 기가 막히지요. 송씨 아들은 뉴욕대학에 다니고, 딸은 코넬대에 다닌대요. 그 아이들은 언제나 공부만 한답니다.” (Don Lee 2001: 248) 이러한 말은 대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직장에서 대니는 이사 자리를 놓고 백인동료 케빈과 경쟁을 하게 된다. 대니는 물론 백인인 케빈이 승진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좌절하며, 케빈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회사에서 승진시킨 사람은 케빈이 아니라

대니였고, 오히려 좌절한 케빈이 심리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단 리는, 교포문학사상 전례 없는 과감한 그러나 절실한 주제를 제시한다. 즉 아시아계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고등교육을 받아도 완전한 미국인이 되기 어려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아시아인들은 실제 미국사회의 인종적 편견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나는 인종적 편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깨달음이다. 그런 면에서 단 리는 용기 있는 작가이자, 통찰력 있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누군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해주어야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백인들 중에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인들은 백인들이면 누구나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으며,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 없는 강박관념은 많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신의 작품들에서 단 리는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종래의 단순구도인 지배문화/피지배문화의 이분법적 구분의 경계를 해체하고, 보다 더 복합적인 시각으로 두 세계를 바라보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중개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비단 단 리 뿐 아니라, 이창래나 이민진이나 테레사 차학경 같은 미국 내 다른 소수인종 작가들도 각기 다른 인식과 방식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두 문화 사이의 갈등과 충돌, 또는 조우와 조화를 해석해내고 그려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문화연구의 최근 관심사인 트랜스문화연구와 문화번역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트랜스 문화연구와 문화번역이 각기 다른 문화들 사이의 조우와 조화, 그리고 중재와 혼합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것이라면, 소수인종문학이야말로 바로 그 기능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와 특성은 작가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시각과 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소수인종문학은 앞으로도

문화연구와 손잡고, 백인 위주의 지배문화와 소수인종의 주변부 문화의 문화적 접촉과 교류, 그리고 갈등과 충돌을 통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진정한 ‘문화적 합병(cultural consolidation)’¹⁵⁾ 성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15)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Knopf, 1993).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책에서 두 문화가 충돌했던 제국주의가 남긴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문화의 합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두 문화가 겹치는 부분, 즉 두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섞이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문화번역과 트랜스문화의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제국으로 인해 모든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어느 문화도 단일하거나 순수할 수는 없다. 모든 문화는 혼혈이며, 다양하고 놀랄 만큼 변별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한 논의가 정치적 변화와 여성들과 소수인종들과 최근의 이민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화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방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헝장과 계몽의 내러티브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의 내러티브—즉 주요 그룹으로부터 제외되어온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통합의 내러티브—라는 사실이다.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자신을 부를 때, 그것은 슬프거나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국이 나누어 놓은 두 세계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두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aid, 1992, xxv-xxvii)

참고문헌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 Bennet, David(1998), ed., *Multicultural States*, London: Routledge.
- Bloom, Harold(1997), *Asian American Writers*,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 Campbell, Neil and Kean, Alasdair(1997),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Cha, Teresa Hak Kyung(1982), *Dictee*, New York: Tanam Press.
- During, Simon(1993) ed., *The Cultur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 Easthope, Antony(1991), *Literary to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Kellner, Douglas(1995), *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London: Routledge.
- Kim, Elaine H.(1982),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 Kincheloe, Joe L. and Steinberg, Shirley(1997), *Changing Multiculturalism*, Buckingham: Open UP.
- Lee, Chang-rae(1999),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 _____ (1995),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 Lee, Don(2001), *Yellow*, New York: Norton.
- Lee, Min Jin(2007), *Free Food for Millionaires*, New York: Warner Books.
- Morris, Libby V. and Parker, Parker(1996), *Multiculturalism in Academe*, New York: Garland.
- Skovmand, Michael and Kim Christian Schroder(1992), *Media Cultures*, London: Routledge.
- Said, Edward(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Knopf.
- Tomlinson, John(1991), *Cultural Imperialism*, London: Pinter.

원고 접수일: 2008년 6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6월 일

ABSTRACT

CULTURAL STUDIES AND MINORITY
LITERATURE IN AMERICA

Seong-K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ast few decades, Korean American writers' immediate concern has been how to render the compelling diasporic experience of immigrants, and how to mediate the irreducible chasm between one's indigenous cultural identity and the dominant culture that one must assimilate into. This is precisely what cultural studies, especially in the sphere of 'cultural translation' and 'trans-cultural studies, has endeavored to explore for the past few years.

As a first generation immigrant, for example, Theresa Hak Kyung Cha's literary world is situated somewhere between her ethnic identity and the dominant culture, in which she is thrown as an existential heroine. Choosing any one of the two will inevitably result in losing the complex issues of socio-political as well as cultural change that take place in the psyche of the uprooted, living in an unfamiliar, often hostile, environment. That is why in *Dictee* (1982), Theresa Cha investigates the clashes between cultures and languages, which inevitably culminate in power politics between the dominant and the marginal ideology. Hopelessly exiled and

uprooted from her own culture, the protagonist of *Dictee* has to write passively what is already spoken, and quietly copy what is already pronounced, as dictated, all in a foreign language. Nevertheless, Theresa Cha disrupts the linguistic norms and rules inherent in dictation that do not allow cultural interactions and diversity. With the spirit of diversity and defiance, she successfully converts *Dictee* into a “writerly text” as Barthes puts it, which invites active interpretation. It is exactly at this moment that *Dictee* achieves what we call “cultural translation” and “trans-cultural interaction.”

The literary world of another representative Korean American writer, Chang-rae Lee, is also deeply rooted in the struggle of a spiritual exile who constantly sways like a pendulum at the threshold of two different cultures. In his first novel, “Native Speaker” Lee depicts a Korean-American who is a perpetual outsider who is alienated from the mainstream America and torn between the two worlds: Korea and America. The novel is about loyalty and betrayal, alienation and accommodation. It is about how to connect with the world rather than stand aloof from it. In his second novel,

Don Lee, however, is radically different from them in the sense that he is deeply concerned not with the cultural or social alienation, but with the psychological problems one encounters while living in American society as a minority. Lee examines the predicament of Americans born of Asian parents in a predominantly Anglo-American society, and the irreducible hiatus and inevitable tensions often unnoticed by white Americans. Don Lee is unique in the sense that, instead of complaining about racial intolerance in American society, he has doggedly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Asian Americans by redefining the concepts of difference and identity. He does not perceive ‘difference and identity’ as a crisis. Rather, he perceives them as a new possibility for Asian Americans living in

multicultural America. While other Asian American writers are struggling with the more immediate problems of the first-generation immigrants such as language barriers, nostalgia, or acculturation, Lee focuses on more profound issues of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 immigrants. *Yellow* well illustrates this new insightful thematic concern of Don Lee's that has significantly broadened the horizon of Asian American literature, thereby opening up a new field of cultural translation and trans-cultural studies.